

파업 여파...추석 대목 우울한 유통업계

금호타이어 장기 파업...광주시내버스 파업 예고 근로자들 소비 위축·기업 추석 선물 구매 지연 롯데백, 고가 선물 저조...신세계, 매출 상승폭 둔화

금호타이어와 광주시내버스 등 지역 기업의 잇단 파업과 파업예고에 지역 유통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월급과 상여금을 받지 못해 당달이 백화점 소비도 줄고 있다. 대기업의 파업에 따라 지역 하청업체의 주문도 가뭄처럼 추석 대목을 기대했던 백화점의 매출이 신통찮다.

특히 금호타이어의 파업에 이어 광주시내버스와 기아자동차 노조도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기업들의 추석 선물 대량 구매도 늦어지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분석한 지난 6~13일 일주일 간 판매 실적이 -1.5%를 기록했다. 이후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가 이뤄지면서 매출이 다소 올라 15일 현재 누계 일일매출은 2.2%였지만 추석 연휴를 앞둔 실적치고는 초라한 수치다.

이 기간 인기 품목도 중·저가 상품에 집중됐다. 예년에 비해 늦은 추석으로 출하 시기가 판매시기와 겹쳐 값이 싸진 과일 세트는 78% 이상 매출이 올랐고, 3~5만 원 중·저가 선물세트도 67% 신장률을 보였다. 반면, 전통적인 명절 선물 인기 품목인 고기와 건강식품의 판매는 저조하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의 일일매출 신장률도 예전만 못하다. 각각 추석을 20여일 앞둔 지난해 8월22일~9월6일 매출 신장은 28%였지만 올해는 14%에 머물렀다.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사전예약판매가 예년에 비해 많이 일일 판매가 다소 줄었고,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기업의 선물 구매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아직 단정할 순 없지만 파업 여파가 백화점의 추석 선물시장에도 서서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파업에 따라 근로자들이 월급과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당달이 하청업체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백화점 한 관계자는 "추석 상여금으로 선물을 사는 소비자가 많아 하는 데 파업 탓에 상여금과 월급을 받지 못하면 백화점 매출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금호타이어의 총 근로자 3500명 중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3000명의 1인당 임금 손실액은 380만원에 달하고 있다. 모두 114억원의 돈이 묶인 셈이다. 파업이 계속된다면 9월 급여도 1인당 평균 300여만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올 추석 상여금도 예년의 93% 정도로 줄었다.

파업 여파로 협력 업체들도 울상이다. 현재 금호타이어 협력업체는 광주전남에만 190여 곳이며 72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일거리가 줄어 추석 상여금뿐 아니라 급여 지급도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16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기아자동차가 파업에 돌입하면 백화점의 추석 장사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아자동차는 근로자와 하청업체가 많아 파업에 따른 피해도 더욱 크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근로자는 7200여명이고, 하청·도급업체 근로자는 1만 2000여명에 달한다. 파업에 따라 이들의 '추석 씬숨이'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백화점과 재래시장 등지의 매출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금호고속, 추석 버스 증차 25~30일 4600회 늘려

금호고속이 추석 연휴를 맞아 임시버스를 증차 운행한다.

연휴 전날인 25일부터 연휴 다음날인 30일까지 고속버스 3600회, 직행버스 1000회 등 모두 4600회 늘려 운행된다. 평상시보다 고속은 1일 평균 600회, 직행은 200회 증차된다.

이를 위해 금호고속은 관광버스 회사와 공동운수 협정을 맺고, 수시로 임시차량을 편성해 버스 가동률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스템을 개편해 광주·전남권을 운행하는 직행버스나 임시버스를 실시간 예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도 고속·직행 버스를 언제든 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발권에 따른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다.

PC예약은 '코버스(kobus.co.kr)', 직행버스 예약은 버스 타고(bustago.or.kr)와 이지티켓(easyticket.co.kr)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어플리케이션 '고속버스 모바일'을 다운해 이용하거나 코버스, 버스타고, 이지티켓 모바일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특히 고속버스 모바일 앱을 통해 모바일 티켓 QR코드를 받은 대표장구나 무인발권기를 거칠 필요없이 고속버스 단말기에 이를 스캔하고 바로 탑승할 수 있다. 고속버스 모바일 앱은 신용카드 뿐 아니라 티머니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김대성기자 bigkim@



신수원 광주지방국세청장(오른쪽 세번째)은 최근 광주 양동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가진 후 직원들과 함께 영세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현장소통 나선 광주국세청

양동시장 영세상인 애로사항 청취...나주세무서 직원 간담회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신수원)은 최근 찾아 장보기 행사를 갖고, 영세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의 날'에 간부 및 직원과 함께 양동시장을

또한 이날 오후 신 청장은 나주세무서를 방문, 직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간담회에서 신 청장은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 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와 근로·자녀장려금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당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75.45 (+37.89)
- ▲ 금리 (국고채 3년) 1.67% (+0.02)
- ▲ 코스닥 676.48 (+9.73)
- ▼ 환율 (USD) 1175.90원 (-10.80)



외국인 고객 유치·상생 경영 롯데백 광주점 제 2도약 나선다

창립 17주년...매장 리뉴얼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18일 개점 17주년을 맞아 외국인 겨냥 판매를 늘리는 등 '제2의 도약'에 나선다.

유영택 롯데백화점 광주점장은 17일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임시 개관과 무인공항 무비자 입국 환승공항 지정 및 중국 전세기 취항 등 광주를 찾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점 17주년을 기점으로 명품 매장 확대와 대대적인 리뉴얼, 친체한 구도심 활성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최근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외국인 명품 수요를 겨냥해 1층에 프라다, 페라가모, 미우미우, 태그호이어, 브라이틀링, 몽블랑 등 해외명품 브랜드를 대거 유치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운용 중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각 언어별 통역이 가능한 직원을 배치했다.

또 온라인에 익숙한 20~30대 고객을 겨냥해 인터넷, 모바일, 오프라인 매장 등 소비자가 접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융합한 '옴니채널' 구현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상생협력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근 전통시장인 대인시장과 상생협력 협약을 맺고 전통시장 자생을 위해 백화점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시장 상인들에게 마케팅 노하우를 전수·사후 관리해주고 있다. 또 전기·소방시설, 노후 점포 리모델링, 상인 자녀 장학금 수여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원해주고 있다.

여수 및 나주 등 지역 상인들의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되고자 '지역 특산물 특별전'도 열고 있다.

유영택 광주점장은 "지역민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지역과의 상생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산수옥면가
41년 모밀장인 이재성 대가

광주·전남 가맹점 대모집

- ▶ 최고의 마진
- ▶ 최소의 창업비용
- ▶ 최소의 인건비

“산수옥면가”
입니다!!

산수옥면가에서 제공하는 옥수와 소스는 41년 노하우를 통해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알맞게 개발된 제품으로서 전문 주방장 없이 초보자도 쉽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줄서서 먹는 대박집 운영 중입니다. 현재 각화점, 학동점 성업중!!

가맹점 문의 **산수옥면가 H. 010-2018-2005, T. 080-358-5000**

www.dvtc.co.kr

초간단, 초간편! 물관리 자동화의 희소식!!

(주)대영 세계 최초 맞춤형 원격조정 MAS시스템 개발성공

기존 인터넷 회선 사용자의 PC에 CD만 넣으면 프로그램 연결완료

인터넷 1회선
MAS

통합관리실 프로그램 연결

현장 상황 CCTV
안내방송
기계동작소리 청취
상태감시
계측 및 제어

설치 가능 장소

- 펌프장
- 배수장
- 양민장
- 배수갑문
- 양수장
- 저수지
- 콜프장
- 상하수도

특장점

- 시스템간의 쉬운 호환
- 일반업체가 케이블만 연결하면 공사완료
- 쉬운 유지관리와 비용절감
- 낙뢰, 통신두절시 자체 차단 및 복귀로 24시간 365일 관리 OK

NAVER 물관리자동화 | daeyoung | (062) 670-0300